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국내의 ‘세계 4대 해전’ 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석영달 *

1. 들어가며
2.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인 발자취
3. 인터넷 공간 속 ‘세계 4대 해전’ 담론
4. ‘세계 4대 해전’의 허상과 진실
5. 나가며

1.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함께 이순신의 동상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역사 속에서 갖는 무게감을 잘 드러내준다. 또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2014년 개봉된 영화 〈명량〉의 흥행이 보여줬듯이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 드라마’, ‘국민 영화’로 인정받으며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또한 해군의 정신적 모태가 ‘충무공 이순신 정신’으로부터 출발함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¹⁾ 이러한 이순신의 영향력 속에서 국내 많은 언론과 홍보단체들은 그의 훌륭한 행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세계 속의 이순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순신의 존재와 그가 승리한 해전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²⁾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세계 속에서 이순신이 갖는 위상에 대해 언급하는 여러 자료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관계 전달에 있어서 오류를 안은 채 그 ‘위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사실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논의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연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는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그 속에는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도 포함되는 것일까?

1) 이는 손원일 제독이 해군창설 시 만들었던 6가지 실천지침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군인은 충무공 정신에 살고 충무공 정신에 죽자.”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모든 해군 장병들이 교육 과정에서 암기하는 ‘해군의 다짐’ 중 첫 번째 문구인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진근·임성채, 『손원일 제독』,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202쪽.

2) 「사이버 외교단 반크」, “이순신 - 세계 속의 이순신” (접속일: 2016. 6. 4. 13:00, URL : http://www.prkorea.com/yisunsinkr/reputation1_k.htm); 「경남도청 운영 충무공이순신 홍보 사이트」, “충무공 이순신 - 이순신의 위상 - 세계 속의 이순신” (접속일: 2016. 6. 4. 13:10, URL: http://www.yi-sunsin.com/04yisunsin/05_01_01.jsp); 「국방일보」, 이현표 전 주미한국문화원장, “지휘관 깃발 끝까지 사수” 친일 영국인도 충무공 극찬” (작성일: 2014. 9. 21., 접속일: 2016. 6. 4. 13:15, URL: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bs_id=BBSMSTR_00000001041&ntt_writ_date=20140922); 「동아일보」, 유성열, “광화문광장서 ‘충무공이야기’도 만난다” (작성일: 2009. 12. 11., 접속일: 2016. 6. 4. 13:20, URL: <http://news.donga.com/3/all/20091211/24717534/1>)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계 속의 이순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읽고자 하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세계 4대 해전’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포털사이트들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블로그 및 웹문서를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갖가지 근거를 대면서 치열한 논쟁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진 바가 없다. 때문에 필자는 ‘세계 4대 해전’ 논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세계 4대 해전’이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언급되어 왔으며, 그것을 통해 대중들 사이에 ‘세계 4대 해전’이란 것이 어떻게 공론화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언급들을 전후로 하여 인터넷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담론들이 오해와 부주의로 만들어진 허상임을 해외, 그리고 국내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밝히면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인 발자취

도서 : 『세계 4대 해전』

먼저 국내에 세계 4대 해전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로 접근해 볼 자료는 바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책이다.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글 학술검색, RISS, KISS, DBPIA 등의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윤지강의 책, 『세계 4대 해전』(2007) 단 하나이다. 이 저서가 출판된 이후로 언론, 인터넷 자료들은 명확한 근거를 얻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하고 해왔다.³⁾ 이 책의 서문에서는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계 4대 해전은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 1588년의 칼레 해전, 1592년의 한산도 해전, 1805년의 트라팔가르 해전 등을 말한다. 세계 3대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에 한산도 해전을 더한 것이다. 3대 해전과 4대 해전의 차이점을 언급한다면, 3대 해전은 해전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축을 마련한 전투이고 4대 해전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중요한 전투를 말한다.⁴⁾

이는 독자들이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납득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설명이다.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3대 해전과 4대 해전의 차이는 단 하나, ‘한산도 해전’ 뿐이다. 그렇다면 한산도 해전을 저자가

3) 『세계 4대 해전』이 출간되기 전까지는 국내의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이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언급할 때 레판토, 미드웨이, 쓰시마 해전 등 다양한 해전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책이 출판된 이후로는 살라미스, 칼레, 한산도, 트라팔가 해전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이 4개의 해전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고양: 느낌이 있는 책, 2007, 16쪽.

말하는 것처럼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중요한 전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분명 임진왜란 시 벌어진 한산도 해전이 우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 더군다나 수천 년의 세계사 속에서 4개의 대(大)해전을 뽑는데 고작 4년 밖에 차이나지 않는 1588년과 1592년의 해전을 동시에 뽑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저자 윤지강은 왜 이런 서술을 하게 되었을까? 서문을 더 읽어보면 저자는 그에 대한 실마리를 남기면서 이 책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역사학자나 군사 전문가가 아닌 탓에 치밀한 역사적 분석이나 군사적 탐색은 뒤로 미루었다. 다만 일반 독자들에게 4대 해전이 전쟁의 국면에 끼친 영향과 해전의 운용, 세계 역사에 끼친 의의를 정리해 보여주려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 마지막으로 4대 해전이라는 좋은 아이টে임을 주신 강창용 사장님, (...)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⁵⁾

여기서 저자 윤지강이 스스로 언급하는 것처럼 그는 역사학자거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윤지강은 역사소설을 주로 쓰는 소설가이며,⁶⁾ 이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 또한 ‘세계 4대 해전’의 근거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었다.⁷⁾ 그리고 이 책에는 서술 내용에 전반적으로 주석이 달려있지 않으며, 글을 쓸 때 참고한 참고문헌 역시 전문 역사서술을 위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서적들도 실려 있다. 때문에 이 책을

5)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16~17쪽.

6) 때문에 이 책의 구성이나 서술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역사 내용을 전달하려는 소설가로서의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었으나, 전문 역사가의 서술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7)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 윤지강에게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직접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받은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근거는 여러 포털사이트의 웹문서 및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세계 4대 해전’ 관련 짧은 글이었다.

‘세계 4대 해전’의 공신력 있는 근거로 평가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있다.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 다음에 실린 추천사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세계 4대 해전’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글을 실으면서 어느새 이 책이 마치 역사적 근거가 있는 학술서적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⁹⁾

팩션(faction)으로서의 드라마와 공공 기관의 이순신 관련 언급

『세계 4대 해전』이 학술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는 대체 어느 곳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 출판사 측에서는 분명 『세계 4대 해전』의 초판 발행일인 2007년 5월 15일보다 더 이전의 어느 시기에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자 윤지강에게 아이টে็ม으로 건네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계기나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흥미롭게도 『세계 4대 해전』의 초판이 발행되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05년 5월 15일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¹⁰⁾의 74부가 방송되었다. 그 74부는 한산도 해전을 다룬 편으로서, 드라마 내에서 한산도 해전이 승리로 끝나고 난 뒤 기쁨에 찬 병사들의 환호성과 함께 해설자의 내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흘러나온다.

8)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394~399쪽.

9) 이 책에 실린 3개의 추천사들은 모두 저자 윤지강의 역사적 통찰력을 칭찬하며 이 책이 ‘세계 4대 해전’을 일반인에게 상기시킨다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사를 써준 3명의 ‘전문가’는 모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다. 박환수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국방전략, 정병용 이순신연구소장은 관광경영학,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국문학 전공자이다.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18~22쪽.

10) <불멸의 이순신>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방영된, 시청률 30%가 넘는 인기 드라마였다.

한산해전, 이것은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장쾌한 대첩이었다. 이날 분명한 왜선의 수는 모두 59척, 물리친 적의 수는 모두 8,980명에 이른다.¹¹⁾

이처럼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평균 시청률이 30%가 넘는 인기 드라마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그것의 존재를 믿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역사를 소재로 한 픽션(faction)¹²⁾으로서의 드라마와 영화가 갖는 한계점이다. 이처럼 드라마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공식화된 ‘세계 4대 해전’은 출판사에서 이순신의 열풍을 이용해서 출판을 계획하고자 했을 때 이순신의 위상을 높이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더없이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¹³⁾

하지만 여기서 남는 의문은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고증 작업, 사전 조사 및 검증을 거쳤을 것인데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드라마 속 전투 장면도 아닌 해설자의 내레이션 부분에서 ‘세계 4대 해전’을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가 제작되기 이전의 ‘세계 4대 해전’ 관련 언급을 조사해보면 바로

11) KBS홈페이지, 불멸의 이순신 74부 방송영상(방영시간 : 21분 37초~57초) 및 대본(URL: http://www.kbs.co.kr/drama/leesoonsin/view/vod/1351760_11955.html)을 참조.

12) 픽션(faction)이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역사를 소재로 상상력을 가미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픽션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기봉, 「픽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제63집, 부산경남사학회, 2007, 1~21쪽을 참조.

13) 실제로 이 방송 이후 윤지강의 『세계 4대 해전』이 출판되기 이전에도 여러 언론 자료나 잡지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특히 전쟁기념관의 학예연구관 박재광의 「세계 해전술의 흐름 바꾼 최무선의 함포」라는 글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급된다. 박재광, 「세계 해전술의 흐름 바꾼 최무선의 함포」, 『과학과 기술』, Vol. 39, No.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6, 49쪽.

충남 아산시에서 주최하여 매년 열리는 <성웅 이순신 축제>라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아산시에서 주최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1961년부터 개최된 ‘온양문화제’를 근간으로 하는 오랜 전통의 지역 축제이다. 온양문화제는 2002년 이전까지는 지역축제로 치러졌으나 2002년과 2003년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사업>에서 ‘예비축제’로 선정되면서¹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만약 아산시에서 이 축제를 더욱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정부로부터 정식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는다면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아산의 온양문화제는 2004년부터 ‘성웅 이순신 축제’로 그 이름을 바꾸었고, 전시행사를 더욱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세계 해전사 전시관’을 신설하여 배치하게 되었다.¹⁵⁾ 그리고 그 세계 해전사 전시관에는 ‘세계의 3대 해전 명장’과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출간한 『지방행정』 53권 606호(2004)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2004년의 제43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에 대한 후기가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안내소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축제장에 들어서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맹활약을 하였던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한 해전탐구관과 세계의 3대 해전 명장으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영국의 벨슨 제독과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전시하는 명장비교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4대 해전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산대첩, 살라미스해전, 칼레해전,

14) 1996년부터 정부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1,000여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2004년 당시 문화관광부)는 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정병웅,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의 행사평가: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전과 이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Vol. 4, No. 1, 순천향대학교이순신연구소, 2005, 406쪽.

15) 정병웅,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의 행사평가」, 416~417쪽.

트라팔가 해전을 비교 전시하여 한산대첩의 우월성을 부각시킨 세계해전사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받게 된다.¹⁶⁾

이와 같이 아산시에서 야심차게 신설했던 세계 해전사 전시관에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세계 3대 해전 명장, 그리고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 지역의 이름을 걸고 치러지는 공식적인 축제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언급되면서,¹⁷⁾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¹⁸⁾ 또는 그 축제를 다루는 주요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¹⁹⁾ 국내의 모든 언론자료에서 ‘세계 4대 해전’을 검색했을 때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 모두 ‘2004년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로 수렴된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발자취를 남긴 ‘세계 4대 해전’은 이후 많은 학술 세미나, 지역 행사자료, 공공기관의 언론 보도 자료의 힘을 입어 2016년 현재에는 국내 전반에 퍼져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은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16)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지방행정』 53권 606호, 2004, 92~93쪽.

17) 이는 아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 통영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영시는 2004년부터 한산대첩을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는 제목으로 세계 4대 해전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산대첩,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개발」, 2004. 5. 3

18) 경남도청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이순신 홍보 사이트인 「임진왜란 불패신화 충무공 이순신」에 [해전체험관-해전사박물관] 메뉴에 들어가면 세계 4대 해전을 당당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명량해전’을 세계 4대 해전으로 포함시키면서 ‘명량대첩 현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경남도청, 「임진왜란 불패신화 충무공 이순신」(접속일: 2016. 4. 30. 14:00, URL: http://www.yi-sunsin.com/02battle/06_01_01.jsp); 연합뉴스, 「명량대첩 현장사업의 본질을 더 이상 왜곡말기를-전라남도청 보도자료」, 2006. 9. 6.

19) 문화일보, 「4개 테마로 나눠 전시·체험기회 등 풍성 -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24일부터」, 2004. 4. 8; 경향신문, 「볼거리 많은 역사여행... ‘아산 이순신축제’와 ‘여수 진남제」, 2004. 4. 13; 세계일보, 「“한산해전”은 민족사의 긍지」, 2004. 8. 11.

발자취를 남기기 이전 ‘세계 4대 해전’은 대체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일까?

3. 인터넷 공간 속 ‘세계 4대 해전’ 담론

사실 국내에는 윤지강의 『세계 4대 해전』이 출판되었던 2007년 이전에, 심지어는 <불멸의 이순신>이 방영되고 아산시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에 세계 해전사 전시관을 신설했던 2004년보다 더 이전부터 이미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논의가 비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또 하나의 담론처럼 형성되었던 상황들을 살펴 보기 위해 <네이버 지식in>의 질문과 답변 사례, 그리고 인터넷상의 여러 게시글을 일종의 사료로 보고 그것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네이버 지식in>의 질문 및 답변을 사료로 택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의 인지도와 규모이다. <네이버 지식in>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2002년 10월 7일부터 시작한 지식 교류 서비스로서, 2012년 9월 네이버에서 1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자료에는 이미 여기서 1억 개 이상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²⁰⁾ 또한 201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여론영향력 점유율 뉴스이용창구 기준’ 1위이자, 국내의 포털사이트들 중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자체의 인지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력 및 파급력은 막강할 것으로 판단

20) 2016년 현재에는 2억 개 이상의 답변이 이뤄질 정도로 수많은 답변이 오고가는 공간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in 메인페이지」, (접속일: 2016. 4. 17. 12:45, URL: <http://kin.naver.com/index.nhn>); 네이버, 「10주년 기념 공지글」, (접속일: 2016. 4. 17. 13:00, URL: <http://kin.naver.com/event/kin10th.nhn>).

된다. 또한 그 지식 교류의 방식이 네이버를 사용하는 익명의 사용자가 질문을 올리면 여러 명의 익명의 사용자가 답변을 올린 후 질문자가 가장 적합한 답변을 채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토론 및 논쟁이 이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왔다는 점도 흥미롭다.²¹⁾ 결론적으로 <네이버 지식in>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익명의 사용자가 어떠한 주제의 질문이나 답변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토론이 오가는 ‘인터넷 토론장’이 되어왔던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던 <네이버 지식in>의 공간을 하나의 공론장²²⁾으로 보고 그 속에서 ‘세계 4대 해전’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1월 14일에 게시된 익명의 사용자의 ‘질문’이다. 이 게시글은 필자가 <네이버 지식in>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세계 4대 해전’이 언급된 게시글을 검색했을 때 가장 초창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질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직 인터넷상에서 ‘세계 4대 해전’ 관련 논쟁이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질문자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세계 4대 해전이란 게 무엇, 무엇인가요?

질문 내용: 세계에 유명한 4대 해전이 있다던데 무엇,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²³⁾

21) 네이버, 「10주년 기념 공지글」

22)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이라는 것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공중이 스스로를 여론의 담지자로 조직해 나가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오늘날의 중요한 공론장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대한 연구』, 서울: 나남, 2001;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언론과 사회』 제20권 4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12, 179-229쪽 참조.

〈네이버 지식in〉에서 이 질문이 이뤄지고 나서 곧 여러 개의 답변이 댓글로 달렸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자가 답변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질문자가 두 종류의 답변을 채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²⁴⁾ 최종적으로 채택했던 답변이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해전’으로 알고 있는 4개의 해전(살라미스, 칼레, 한산, 트라팔가 해전)이 아닌 다른 4개의 해전(악티움, 레판토, 트라팔가, 유틀란트 해전)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3년 1월까지의 아직 ‘세계 4대 해전’ 담론이 지금처럼 고착화되지는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003년 1월 27일에 다시 한 번 유사한 질문이 등장한다.

제 목: 세계 3대 해전은 무엇이 있죠?

질문 내용: 전에 누가 트라팔가 해전이 세계 3대 해전이라는데, 그 외에 무엇이 있죠? 그리고 벨슨 제독이나 일본의 해군 제독이 이순신 장군 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제일의 해군 제독이라고 했다던데 이것 역시 사실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²⁵⁾

이 질문에서는 ‘4대 해전’이 아닌 ‘3대 해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채택된 답변은 많은 양의 정보와 함께

23) 질문자(xcan****), 「세계 4대 해전이란 게 무엇, 무엇인가요?」, 『네이버 지식in』, (작성일: 2003. 1. 14. 20:47, 접속일 : 2016. 6. 11. 14:00, UR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54820286&sp=109&sort=3&rank=2&search_sort=0&qb=7IS46rOEIDTrjIAg7ZW07KCE§ion=kin&spq=0&enc=utf8)

24) 그 중 첫 번째 답변자(spor*****)는 ‘악티움, 레판토, 트라팔가, 유틀란트 해전’을 답변했고, 두 번째 답변자(san*****)는 우리가 앞서 윤지강의 『세계 4대 해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살라미스, 칼레, 한산, 트라팔가 해전’과 관련된 답변을 제공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질문자가 첫 번째 답변(악티움, 레판토, 트라팔가, 유틀란트 해전)을 최종 답변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25) 질문자(xcan****), 「세계 3대 해전은 무엇이 있죠?」, 『네이버 지식in』, (작성일: 2003. 1. 27. 15:29, 접속일 : 2016. 6. 11. 14:30, UR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62200297&sp=109&sort=3&rank=2&search_sort=0&qb=7IS46rOEIDTrjIAg7ZW07KCE&spq=0§ion=kin&enc=utf8)

다음과 같은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답변 :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이 있구요.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물론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장군의 승리가 넷 중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²⁶⁾

이 답변에서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이라는 문구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질문에서 채택되지 못한 답변에도 이미 한 번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 답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해전들이 바로 우리가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 발자취를 짚어볼 때 살펴볼 수 있었던 ‘살라미스, 칼레, 한산, 트라팔가 해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과 답변을 기점으로 인터넷상의 익명의 비전문가들은 마치 소위 말하는 ‘편승효과(Bandwagon effect)’처럼 서로의 글을 인용하며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이 4개의 해전을 ‘세계 4대 해전’으로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이 답변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네이버 지식in>에서는 100여개에 달하는 ‘세계 4대 해전’ 관련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는데, 그 답변의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이뤄진 답변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게시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와 해외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과연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을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의 진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밝히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주장이 처음 등장하고 전파되는 시점과 그 과정에 대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26) 답변자(pan****), 「답변: 세계 3대 해전은 무엇이 있죠?」, 『네이버 지식in』, 작성일: 2003. 2. 11. 20:31.

답론 형성과 관련지어 좀 더 이야기해볼 수 있다. 앞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이라는 문구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더 검색하면 ‘지식거래 플랫폼’이라고 칭하는 인터넷 사이트 <해피캠퍼스(Happycampus)>에 2002년 10월 19일 등록된 자료, ‘역사[거북선]’이라는 자료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 자료의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문 내용 요약 문구는 다음과 같다.

1998년 11월 19일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제독(李舜臣提督; 1545.3.8. - 1598.11.19)이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전투 중에 54세를 일기로 순국하신지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계 4대 해전(世界四大海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B.C. 480년 그리스의 데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 제독의 살라미스(Salamis)해전
- 1588년 영국 하워드(Howard) 제독의 칼레(Calais) 해전
- 1592년 거북선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 이순신(李舜臣) 제독의 한산대첩(閑山大捷)
- 1805년 영국 넬슨(Nelson) 제독의 트라팔가(Trapalgar) 해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승리는 가장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07년 막강한 러시아 극동함대(露西亞 極東艦隊)와 싸워 이김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아마토 제독(大和提督)은 주위에서 그를 이순신 제독과 같은 위인이라고 칭송하자 이에 “나의 공로를 영국의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순신 제독의 업적에는 따라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²⁷⁾

위의 글은 처음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2002년 이후 <네이버 지식in>을 비롯하여 각종 웹사이트들에 그대로 인용되며 ‘세계 4대 해전’의 존재와 그것을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

27) 등록자 미상, 「[역사]거북선」, 『해피캠퍼스』 (접속일: 2016. 4. 18. 15:00, URL: <http://www.happycampus.com/doc/1135503>)

하는 여러 게시글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신빙성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먼저 여기서 1588년의 영국의 하워드(Howard) 제독이 참전한 영국과 스페인 간의 해전을 ‘칼레 해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의 해전 전반을 호칭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다.²⁸⁾ 또한 “1907년 막강한 러시아 극동함대와 싸워 이긴 일본의 야마토 제독”이라는 표현도 오류이다. 이는 1905년 쓰시마 해전(Battle of Tsushima)에서 승리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을 설명하고자 한 듯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료에는 ‘트라팔가(Trafalgar)’의 영문 철자 오류나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의 외래어 표기 오류와 같은 전문적인 글로 보기에는 힘든 오류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인용문은 신빙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자료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글의 내용과 철자 오류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세계 4대 해전’의 근거로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점점 더 살을 덧붙여 가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책을 근거로 들며 ‘세계 4대 해전’을 주장하는 허구적인 답변까지 양산하게 된다.²⁹⁾ 이런 글들은 <네이버

28) 여기서 언급된 1588년의 영국과 스페인 간의 해전은 영국 해협, 칼레(Calais) 앞 바다, 그라블린(Gravelines) 앞바다 이렇게 3개의 전장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칼레 해전이라고 통칭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해외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해전을 ‘아르마다 전역’ 혹은 ‘아르마다 해전’이라고 부르거나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투’ 등으로 언급한다. 아르마다 해전의 권위자인 개릿 매팅리(Garrett Mattingly)는 스페인 함대의 패배(the defeat of the Spanish Armada) 혹은 아르마다 전역(the Armada Campa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Garrett Mattingly, *The Armada* (New York: Houghton Mifflin, 2005, First printed in 1959) [개릿 매팅리 지음, 콜린 박·지소철 옮김, 『아르마다』, 서울: 너머북스, 2012]를 참조.

29) 실제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질문에 많은 수의 답변을 남긴 ‘heli*****’이라는 답변자는 *History of War and Strategy*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책을 언급하면서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 답변자는 이 책이 1982년 랜덤하우스(Randomhouse)에서 발행되었다고 하지만 이 책은 구글 북스(Google Books), 아마존(Amazon), 애비북스(Abebooks), 그리고 랜덤하우스 홈페이지까지 모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책이다. 그리고 이 답변자는 답변 속에서 이 책이

지식in)에서 부여하는 지식의 등급체계에 가려져 마치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인터넷 공간 속에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해갔던 것이다.³⁰⁾

한편 이런 담론의 형성은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을 배웠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 누리꾼의 글이 처음 실린 곳은 <영화진흥공화국>이라는 영화 정보 커뮤니티로서, 이곳은 『PC사랑』이라는 컴퓨터 잡지에 영화 관련 우수 블로그로도 여러 차례 선정된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실린 ‘세계 4대 해전’ 관련 글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이 “해전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주장 중 하나일 뿐이며,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나름의 균형 잡힌 서술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글은 많은 누리꾼들에게 더욱 신빙성 있게 다가갔으며 현재 수많은 웹사이트 및 블로그들에 인용되어 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982년’에 발행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1963년’부터 영국과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재로 쓰였다고 하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답변자는 <네이버 지식in>의 등급체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호신’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차례 오류가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많은 누리꾼들에게 비판도 받고 있다. 이는 답변의 질과 관계없이 개수만 많이 채택되면 높은 계급을 부여하는 <네이버 지식in> 등급 체계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답변자(heli*****), 「답변」, 『네이버 지식in』, 2011. 12. 28. (접속일: 2016. 4. 16. 15:00, UR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clid=11&dirId=111002&docId=142397933&qb=71S46rOEIDTrjIAg7ZW07KCE7J20652864qUIOqYg+ydgCAAn7ZW07KCE7IKsJ+ulvCDsl7DqtaztlZjripQg6rWQ7IiY65Ok7J2YIOyjvOyepSDspJHsl5Ag7ZWY64KY7J6F64ul64ukLg==&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

- 30) <네이버 지식in>은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답변 채택 시 ‘내공’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일정 내공 충족 시 다음 계급으로 승급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영웅’ 단계부터 ‘절대신’과 같은 높은 계급을 얻은 답변자들의 답변은 실제 답변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질문자에게 신뢰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네이버 지식in>의 질문-답변 체계가 갖는 맹점이다. 네이퍼, 「등급업 가이드」 (접속일: 2016. 4. 16. 16:00, URL: <http://kin.naver.com/people/levelup/index.nhn>)

‘이순신 제독의 한산대첩’이 4대 해전에 들어가느냐? 라는 의문이 많나 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건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에서 과연 저런 것을 배우는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한국이라는 곳이라서, 한국의 전신인 ‘조선’의 장수에 대한 승전이야기라서, 부풀려지고 곡해된 것은 아니냐? 라는 의문인 것이죠. (...)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키 위해서는 ‘사관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관학교는 ‘교육’에 관해서는 ‘대학’과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저는 ‘군사전략학과’였습지요. 찾아보니 전기, 정보통신공학, 기계조선, 경영과학, 해양학, 전산과학, 국제관계학, 군사전략학, 외국어학이 전공으로 존재합니다. 허나 전공이 다르더라도 ‘해전사’는 공통필수 과목입니다. (...)

마찬가지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은 ‘해전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세계 3대 해전’을 배우는 국가도 있고, 영국과 독일,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세계 4대 해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제가 알기론 가르치는 교수마다 ‘다르게 가르칩니다.’³¹⁾

이 글은 ‘세계 4대 해전’에 한산해전이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 속에 의미 있는 해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맺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 대해 논쟁을 펼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조로 쓰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글을 다시 인용한 다른 수많은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에서는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와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4대 해전을 가르친다”라는 주장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의 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글을 쓴 누리꾼이 정말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의 해전사 수업에서 ‘세계 4대 해전’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지가

31) 「세계 4대 해전? 한국이라서 꼬인 이순신 이야기」, 2008. 1. 6. (접속일: 2016. 4. 16. 16:30, URL: <http://0jin0.com/1186>)

의문이다. 이 글을 쓴 누리꾼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1999년에 제57기 해군사관생도로 입교하였다가 도중에 중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누리꾼은 해군사관학교의 전체 수업과정을 다 이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누리꾼이 재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해군사관학교 수업과정을 확인했을 때, 당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해전사 수업은 오직 4학년에만 편성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누리꾼은 해군사관학교의 정식 해전사 수업은 받지 않은 채로 중퇴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가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수업은 2학년 수업에 편성되어 있던 ‘충무공/장보고 연구’ 과목으로서, 그 수업은 해군사관학교 해전사 교수가 아닌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던 한 강사가 진행한 수업이었다. 이 수업에서 그 강사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군사관학교의 정식 해전사 수업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을 별도로 선정하여 가르친 바가 없다. 이는 20년 전에도 그랬고,³²⁾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해외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필자는 미국 해사, 프랑스 해사, 독일 해사, 일본 방위대에 파견되어³³⁾ 2~4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각각의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 시간에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지를 문의했다.³⁴⁾ 그러나 그 4개의 사관

32) 해군사관학교에서 20년간 해전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께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지금껏 강의와 연구를 해오면서 그런 용어를 얘기하는 해전사 연구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33)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는 1966년부터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2001), 프랑스(2007), 독일(2007)까지 추가하여 총 4개의 학교에 사관생도를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 이 위탁 교육은 매년 대상자를 선발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미 해사의 경우에는 1966년에 1명, 1986년 이후부터 4년에 2~3명씩, 다른 사관학교의 경우 2년에 1명씩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70년사』, 대전: 국군인쇄창, 2016, 332쪽.

34) 인터뷰에 응해준 유진홍 해군 대위(진), 이성복 생도(미 해사), 허은석 해군 대위

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해전사 수업 시간에 별도로 ‘세계 4대 해전’을 배운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임진왜란 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해전에 대해 배운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격인 다트머스(Dartmouth)의 왕립 해군 대학(Britannia Royal Naval College)에 방문한 한국 해사 생도들을 통해 영국의 생도들 및 장교, 교수들에게 4대 해전에 관련해서 문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왕립 해군 대학 관계자들은 주요 해전 4개를 뽑아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런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³⁵⁾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및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세계 4대 해전’을 뽑아서 가르친다는 주장 역시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³⁶⁾

4. ‘세계 4대 해전’의 허상과 진실

해외의 ‘세계 4대 해전’?

해외의 사관학교에서 ‘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해외의 학술자료들은 어떨까? 먼저 여기서 명확히 하고 가야할 부분은 1900년대 초부터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조지 밸러드(George A. Ballard), 호러스 언더

(프랑스 해사), 배준호 해군 중위(독일 해사), 노준식 해군 대위(진)(일본 방위대)에게 감사를 표한다. (인터뷰 일자: 2016. 4. 14.)

35) 이 인터뷰는 영국 왕립해군대학의 생도들에게 학년별로 3명씩, 장교 및 교수들에게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자: 김준범 해병 중위(진)(인터뷰 당시 3학년 생도), 인터뷰 일자 : 2014. 11. 22~23.)

36) 물론 이 4개의 외국 사관학교에는 해전사를 가르치는 다양한 교수진이 있을 것이므로 수업 내용에 대해 완벽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업 내용이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우드(Horace, H. Underwood) 등의 인물들이 논문이나 책을 저술하여 해외에 ‘이순신’과 ‘한산도 해전’을 알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³⁷⁾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해외의 많은 학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세계 해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이순신과 한산도 해전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³⁸⁾ 하지만 이 사실이 한산도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반의 자료를 검토하면 좋겠지만,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된 인터넷상의 ‘세계 4대 해전’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국과 미국, 이 두 나라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해외에서 언급하는 ‘주요 해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대표적인 전쟁사학자이자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Royal Military College, Sandhurst)에서 26년간 전쟁사 교수로 재직한 존 키건(John Keegan)은 『제해권의 가치: 해전의 진화』(*The Price of Admiralty: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라는 책에서 4개의 해전을 선정하여 역사 속 해전 흐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4개의 해전에는 한산도 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살라미스 해전과 아르마다 해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그는 트라팔가 해전(the Battle of Trafalgar), 유틀란트 해전(the Battle of Jutland), 미드웨이 해전

37) 호머 힐버트(Homer B. Hulbert),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조지 벨러드(George A. Ballard) 등의 학자들이 남긴 이순신 관련 기록들과 초창기 이순신의 해외 전파 과정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차후 연구에서 더욱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38) R. G. Grant, *Battle at Sea: 3000 Years of Naval Warfare* (New York: DK, 2008)이나 Iain Dickie, Martin J. Dougherty, Phyllis J. Jestice, Christer Jörgensen, Rob S. Rice, *Fighting Techniques of Naval Warfare*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9)와 같은 해외의 도서들은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산도 해전을 세계 해전사 속 주요 해전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순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책들에도 ‘세계 4대 해전’과 같은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the Battle of Midway), 그리고 독일의 잠수함이 활약했던 대서양 전투(the Battle of the Atlantic)를 해전사 흐름의 분기점으로 삼아 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³⁹⁾ 물론 여기에서도 키건은 이 4개의 해전을 역사 흐름의 분기점(landmark)라고만 언급할 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언급은 꺼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에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포터(E. B. Porter)의 『해양력: 해전사』(*Sea Power: A Naval History*)는 갤리(Galley) 함선이 활약하던 시대부터 냉전 시대까지 이뤄진 다양한 해전 및 해양사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초기 해전사 부분에 살라미스 해전, 악티움 해전, 레판토 해전, 아르마다 해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한산도 해전은 다루고 있지 않다.⁴⁰⁾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 외에도 영·미의 학자들이 소수의 주요 해전을 나열할 때 한산도 해전을 포함하는 경우는 아쉽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의 웹사이트나 블로그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해외의 많은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에는 우리나라의 누리꾼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세계의 유명한 해전들을 자신들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해전사의 흐름을 짚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언급하며 해전을 4개만 선정하여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그들은 5개, 10개, 11개, 12개, 심지어는 35개에 이르는 유명한 해전을 선정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⁴¹⁾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39)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 (New York: Penguin, 1990)을 참조.

40) E. B. Porter, *Sea Power: A Naval Histor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1)를 참조.

41) 「Top 5 Naval Battles of All Tim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00, <http://nationalinterest.org/commentary/top-five-naval-battles-all-time-9187?page=2>); 「The 10 Most Decisive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15, URL: <http://sl.zetaboards.com/chumsofthedark/topic/4585846/1/>); 「10 Battles That Turned the Tide of War」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30, URL:

역시 한산도 해전은 대부분 빠져있다. 즉, 한산도 해전은 해외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포괄적인 해양의 역사 또는 해전사의 흐름을 다루고자 할 때 포함되기는 하지만, 전체 역사에서 주요 해전들을 선정하여 다룰 때 반드시 포함되는 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 중심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기준이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 다만, 해외에서 ‘세계 4대 해전’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요 해전을 선정할 때 한산도 해전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오역과 오해, 그리고 부주의가 만든 해프닝

그렇다면 해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4대 해전’이 국내에서 근거 없는 논쟁과 함께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된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해피캠퍼스>의 「[역사]거북선」이라는 자료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의 본문 요약 문구 중 첫 번째 문장의 ‘1998년 11월 19일이 충무공 순국 400주년’이라는 부분에 주목해보자. 이 문장은 「[역사]거북선」 자료의 본문 요약뿐만 아니라 실제 자료의 본문에도 첫 문장으로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 문구이다. 이는 이 자료가 1998년 충무공 순국 400주년을 기념한 어떤 학술행사에서 활용되었거나, 혹은 그 행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 작성되

<http://listverse.com/2010/03/12/10-battles-that-turned-the-tide-of-war/>; 「11 Top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45, <https://usnaorbust.wordpress.com/2009/12/10/eleven-top-naval-battles/>); 「35 Most Important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5:00, URL: <https://www.preceden.com/timelines/174154-35-most-important-naval-battles/>); 「Greatest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5:15, URL: <http://historum.com/war-military-history/14478-greatest-naval-battles.html>) 등을 참조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1998년에는 정부 주관의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이충무공의 삶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⁴²⁾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서 본고의 〈각주 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과학과 기술』이라는 저널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했던⁴³⁾ 전쟁기념관의 박재광 학예연구관이 1998년 당시에도 전쟁기념관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⁴⁴⁾ 박재광 학예연구관은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인물로서 1998년의 이충무공 관련 학술세미나에도 당연히 참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그 학술세미나에서 ‘세계 4대 해전’을 직접 언급했던 것일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학술세미나는 1998년 12월 3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장장 9시간 넘게 진행되는데, 이때 발표된 자료들은 모두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 이순신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598~1998』라는 학회논문집에 실려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집에는 분명 박재광의 논문은 없다. 그렇다면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누군가의 논문으로부터 박재광이 영향을 받는 않았을까? 이 지점에서 다시 시간을 2010년으로 옮겨 박재광이 아산시 온양에서 열린 제12회 〈충무공 이순신 학술세미나〉에 발표 중에 했던 언급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재광은 여기서 「거북선 구조의 제(諸)학설」이라는 발표를 하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박재광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은 “근대 이후로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하여 가장 먼저 논문을 발표한 이는 외국학자인 언더우드(Underwood)라고 말하고 『한국의 배와 함정들』(Korean Boats and Ships)의 제6장에서 임진왜란

42) 연합뉴스, 「李충무공 순국 4백주년 맞아 행사 다채」, 1998. 4. 22.

43) 박재광, 「세계 해전술의 흐름 바꾼 최무선의 함포」, 49쪽.

44) 한겨레, 「애국심에 일그러진 한-일사 진실」, 1998. 3. 3.

에서 이순신장군의 활약부터 거북선에 대한 고증, 이순신 장군과 영국 드레이크 제독과의 비교, 이순신장군의 인격까지 서술했다.”면서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부터이며 최영희, 조성도, 김재근, 최석남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했다.⁴⁵⁾

여기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박재광은 조선 말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라는 인물의 저술과 최영희, 조성도, 김재근, 최석남이라는 4명의 학자의 초창기 연구에 깊은 감명 혹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⁴⁶⁾ 여기서 먼저 ‘최영희’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해보자. 그는 앞서 언급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논문은 학회논문집인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에도 실려 있다. 그 내용에서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만한 내용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 한산대첩은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포위하고 집중 포격하여 섬멸한 작전이였다. (...) 이에 대해 Ballard는 ‘적을 유인하여 포위하는 해군 함선의 기동은 오늘의 경험이 많은 해군 장교만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도 400년 전 이순신의 전략전술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또 ‘이 한산해전은 한국에 있어서의 살라미스해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침략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라고도 평가된다.⁴⁷⁾

② 또 영국의 해군준장 G.A. Ballard는 다음과 같이 이충무공을 찬양하고 있다. “이순신 제독은 서양 사학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그로 하여금 넉넉히 위대한 해군사령관 중에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게

45) 덕수이씨 정정공·풍암공 종회, 충무공과 종회, 「충무공 이순신 홈페이지」(집속일: 2016. 4. 24. 13:00, URL: http://choongmoogongleesoonsin.co.kr/sub_10/noticev.asp?strpage=&boardidx=1095&boardtype=00)

46) 특히 박재광은 ‘세계 속의 이순신’과 관련된 서술에 있어서 최영희의 글과 유사한 서술을 보인다. 이상훈·노성호·박재광·최두환, 『충무공 이순신』,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256쪽.

47) 문화관광부·전쟁기념관,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 이순신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598~1998』, 서울: 전쟁기념관, 1998, 10쪽.

하였다. (...) 그는 전투가 벌어지면 강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넬슨(Nelson)과 공통된 점이 있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해군제독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란 항상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⁴⁸⁾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박재광이 초기 이순신 연구가로 인정한 최영희는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계 속의 이순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최영희는 1998년 이전에도 유사한 서술을 남긴 적이 있는데 1993년 『한국인』에 기고한 「세계 해전사에 신화 낳은 명장 이순신」이라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했다.

영국의 해군 준장이며 역사가인 벨라드는,⁴⁹⁾ 이순신은 전략적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고 전술의 비상한 기술과 통솔력을 겸비했으며, 어떤 전투에서도 그가 참가하기만 하면 승리는 항상 결정된 것과 같았다고 평가하며 장군의 위대한 전략 전술을 넬슨과 비교하고 있다.⁵⁰⁾

만약 누군가가 이 서술들을 참고했다면 이순신의 해전을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영국의 넬슨(Nelson) 제독이 승리한 트라팔가 해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칼레 해전은 왜 등장하게 된 것일까?

48) 문화관광부·전쟁기념관,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21쪽.

49) 최영희는 벨러드를 해군 준장이라고 서술했는데, 사실은 최영희가 참고한 책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을 저술할 당시 벨러드의 계급은 중장(Vice-admiral)이었다. 또한 벨러드는 역사가보다는 전략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전역을 앞둔 시점부터 역사 저술을 시작했다. 석영달, 「1920년대 영국 해군 중장 조지 벨러드의 일본사 저서가 갖는 의미 -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1921)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34호, 영국사학회, 2015 참조.

50) 최영희, 「세계 해전사에 신화 낳은 명장 이순신」, 『한국인』, Vol. 12, No. 5, 사회발전연구소, 1993, 60쪽.

이는 앞서 언급된 조선 말 선교사 출신의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의 저술과 관계시켜 살펴볼 수 있다.

언더우드는 박재광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배와 함정들』(*Korean Boats and Ships*)이라는 책을 1933년 출판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앞서 언급된 험버트나 밸러드와는 달리 이순신과 그의 해전을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와 ‘아르마다 해전(칼레 해전)’과 비교했다. 이는 지금껏 ‘세계 4대 해전’ 담론에서 왜 이순신의 해전과 함께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 해전’이 언급되어 왔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 ‘세계 4대 해전’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근거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재수가 언더우드의 책의 6장을 번역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재수의 글에서 〈세계사상 매우 중요한 해전〉이라는 소제목으로 향하면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나게 된다.

4대(大) 해전은 사상 유래가 없는 큰 해전인 바, 부산 해전에서는 양측의 선박을 합쳐서 700여척이 동원되었으며, 기타 해전에서는 100~200척 또는 300척이 참전하였다. 이러한 대 해전 외에도 기록 안 된 많은 작은 해전들이 있었다. (주: 세계 최대의 해전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영국 간의 해전에 참가한 선박이 양측을 합해 400척이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이 글 전체를 읽으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언급되는 ‘4대(大) 해전’이 임진왜란 중 있었던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해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⁵²⁾ 이는 임진왜란 중 치러진 전투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을

51) 여기서 진한 글씨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며, 인용문 마지막에 표시된 ‘주’는 언더우드의 글을 번역한 최재수가 본문에 달아놓은 것이다. 참고로 영국-스페인 간의 해전을 ‘세계 최대의 해전’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Horace H. Underwood 지음, 최재수 옮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월간 해양한국』, Vol. 22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2, 73쪽.

52) Horace H. Underwood, 최재수 옮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73쪽.

‘3대 대첩’이라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4대 해전을 보고 〈세계사상 매우 중요한 해전〉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주’에 달린 세계 최대의 해전이라는 말과 엮어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문구를 떠올린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바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세계 4대 해전 담론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언더우드의 글을 최재수가 번역하여 출판한 이 1992년의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이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 글의 원저자 언더우드는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⁵³⁾ 결국 ‘세계 4대 해전’ 논쟁은 해외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과장과 그 글에 대한 오해, 혹은 전문가들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우리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5. 나가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3대 미항’ 등 ‘세계의 ~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며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데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동의할만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과 함께 ‘세계 속의 이순신’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고찰해보면서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의미 없는 논란들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53) 언더우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se four engagements were naval battles on no mean scale.” 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 4개의 전투는 엄청난 규모의 해전이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 4대 해전’은 십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국내에서 하나의 담론처럼 점차 강화되어 왔지만 그 기반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이자 영웅인 이순신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노력들과 사실 확인에 대한 부주의가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우물 안’ 담론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승효과(Bandwagon Effect)’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익명의 비전문가들의 주장에 편승하여 어느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국내 전반에 형성되어왔다.

우리가 해전사를 공부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해전을 짚어볼 수는 있다. 세계 해전사의 흐름을 논하다 보면 앞서 언급된 살라미스 해전, 아르마다 해전, 트라팔가 해전뿐만 아니라 악티움 해전, 레판토 해전, 쓰시마 해전, 유탄란트 해전, 미드웨이 해전 등의 수많은 주요 해전들을 관심 있게 다루게 된다. 게다가 여기에 언급한 해전들 외에도 여러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해전들은 분명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며,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 역시 역사적 가치나 해전사적 의의를 고려했을 때 이런 세계의 주요 해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들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⁵⁴⁾

그리고 이 ‘세계 4대 해전’ 논쟁은 일반 대중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쉽게 말해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학문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남긴다. 그들이 대중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혹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훗날에는 어떤 공신력 있는 근거로 남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인해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

54) 그리고 굳이 주요 해전들을 통칭하여 부르려고 했을 때에는 ‘~대 해전’보다는 ‘결정적 전투(decisive battl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글 한 줄, 말 한마디는 반드시 깊은 고민과 책임감과 함께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8.4, 심사수정일: 2016.11.17,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세계 4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한산도 해전, 트라팔가 해전,
이순신, 드레이크, 넬슨,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 호러스 언더우드

<ABSTRACT>

The Study on the basis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 Focused on the process of forming of disputable discourse -

Seok, Yeong-Dal

This study aims to look at ‘Admiral Yi Sun-Shin’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and tries to figure out how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were formed and began to be used in Korea. For this purpose, I reviewed historical records as well as information on ‘Admiral Yi Sun-Shin’ introduced in the media and posted on the Internet. This paper is the first academic approach to the discussion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in Korea.

The discussion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had strengthened as a ‘discourse’ for more than ten years in Korea. However, the academic basis of the discussion was nothing but an illusion.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at this popular concept among Koreans was just derived from some non-professionals’ wish to raise the status of Admiral Yi and the negligence in verifying this argument. This myth had rapidly and widely spreaded on the Internet by ‘Bandwagon Effect’ for a long tim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roversies have been maintained on the Internet in Korea. For example, the main subjects of the controversies are ‘the academic ground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The reality of the alleged contents of History of Naval Battles at other Naval Academies in the world,’ and ‘the fact whether foreign scholars have mentioned it or not.’ I expect this study would give the answer more close to the truth and put an end to the long-lasting controversy.

Key words :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the Battle of Salamis, the Battle of Calais, the Battle of Hansando, the Battle of Trafalgar, Yi Sun-Shin, Francis Drake, Horatio Nelson, George A. Ballard, Horace H. Underwood